이 책의 예제는 모두 자바스크립트와 HTML 기반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바스크립트는 꼭 필요한 사전지식 중 하나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매쉬업을 구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웹에서 가장 기초적인 언어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객체 지향 언어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자바스크립트로 매쉬업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RIA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현재 플래시나 플렉스는 RIA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플래시나 플렉스가 없는 사이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독자 중에는 평소 플래시나 플렉스를 사용해보고자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이도 많을 것이고, 별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으로 관심은 있으나 포기한 이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쉬업을 하게 될 텐데, 난데없이 플렉스나 플래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플래시/플렉스의 도움을 받게 되는 면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플래시의 기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 약간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과연 책에서 두 가지 언어를 다뤄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두 언어는 알고 보면 이용하는 객체에 차이가 있을 뿐 문법은 거의 동일하며, 같은 줄기에서 나온 언어여서 비슷한 면이 많아 책을 통해 가볍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물론 예제를 구현하는 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자세한 설명을 함께할 것이다. AIR는 어도비의 런타임으로, 플래시나 플렉스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나 HTML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AIR는 윈도우/맥/리눅스에서 동작하면서 SQLite라는 작고 가벼운 로컬 데이터베이스도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읽고 쓰기도 가능하고, 배포도 상당히 용이한 편이어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다. 또한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와 HTML만으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자바스크립트의 최대 난관이었던 크로스 도메인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여러 가지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어찌 보면, AIR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중간 위치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웹과 데스크탑의 중간에서 모두의 장점을 갖고 싶을 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책에서 많은 예제가 AIR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자바스크립트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일단 서버의 도움 없이도 가장 쉽게 매쉬업을 구현할 수